

제 33 호 일본 퀴즈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 평가가 한 두어 달 후에야 결과가 되 돌아옵니다. “아, 학생들이 내 수업에 구체적인 예가 별로 없었던 것에 힘들어했구나. 가끔 예를 드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강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역시 강의 평가는 “발전지향적 목적”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추상적인 강의를 지루하게, 또는 어렵게 들은 학생들은 벌써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학기에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단점을 즉시 발견하고 그때그때 개선해서 학생들에게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없을까요?

강의 평가를 반드시 학기말에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제시한 강의 평가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학기말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의 평가는 규칙에 따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 이외에도 학기 중에 수시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전후에 비공식적으로 강의 평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문지를 모방할 수도 있고, 간소하게 약식으로 치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수님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점에다 초점을 맞추어 설문지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강의 평가는 “일본 퀴즈”라는 미국서 상당히 많이 쓰는 강의 평가서입니다. 이 강의 평가서는 수업이 끝나기 일 분전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써내는 것인데 질문은 단 두개입니다.

1. 이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떤 부분이 제일 혼동스럽습니까?

만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가지각색이면 수업의 교육 목적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새시대 교수법 20~21호)

만일 두 번째 질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였다면 다음 수업 시간에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가지 전에 짚막하게라도 보충 설명하시면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는구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강의를 하시는구나. 역시 학생들을 배려해주시는 교수님이시다.” 학기말 강의 평가 최종 점수 1 점 미리 따놓으신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분 퀴즈“는 매 수업마다 할 수도 있고, 매주 한 번할 수 있고, 가끔가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 합니다. 수강생 수가 일 이백명이 되어도 시간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대개 비슷한 내용을 적어내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코너>>

“발전지향적“ 강의 평가는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정보시대에 걸맞은 운영체제는 real-time 프로세싱, just-in-time delivery 등이며 교육에도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강의 평가가 “결론지향적 목적“(교수 실적 평가, 연봉제 등)으로 치우치게되면 남는 것은 “괴로움“ 밖에 없습니다.

© Peck Cho, 1999